

# 인류의 흥망성쇠는 ‘노동·성·권력’ 구조에서 이뤄졌다

## 노동, 성, 권력

윌리 톰슨 지음



우주가 ‘빅뱅’ (대폭발)을 통해 탄생한 때는 137억년전이고, 지구는 우주의 역사 중에서 3분의 1 정도의 시간만큼 존재해왔다. 그리고 지구상에 인류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대략 260만년전의 일이다.

지구 전체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해서 생각하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인 삼엽충이 처음 바다에 나타난 것은 11월 말이고, 공룡은 크리스마스 즈음에 멸망했다. 특히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때는 한해가 저물기 20분 전이다. 이집트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2시간에 걸쳐 지금까지의 모든 문명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석기 시대부터 현대의 기계문명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사를 바꾼 핵심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적 역사학자인 윌리 톰슨(사회주의 역사학회 명예 부회장)은 역저 ‘노동, 성, 권력’에서 “인류의 흥망성쇠가 노동·성·권력이라는 완전한 구조 안에서 발전한 것이며, 이 세 가지 핵심동력은 ‘역사의 씨줄과 날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역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을 관념이 아니라 물질에서 찾은 윌리 톰슨의 입장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과 쇠락의 역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파악한다. 이는 무기(총)와 병군(군), 금속(쇠)을 인류문명의 키워드로 보는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견해와 대조적이다.



인류 문명의 수레바퀴를 역동적으로 나아가게 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윌리 톰슨은 노동과 성(性), 권력을 꼽는다. 원시 시대부터 우주 시대까지 인류역사를 조망한 영화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감독 스탠리 큐브릭·1968년작)의 한 장면.

저자가 주목하는 첫 번째 인류역사의 원동력은 ‘노동’이다. 노동은 어떤 종류의 노동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노동의 흐름 속에서 노동이 어떻게 탄생했고 발전했는지 분석한다. 특히 인류역사는 노동을 하는 자와 그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들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제노역과 노예제도, 농노제도, 임금을 받는 노동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계급이 형성됐다. 저자는 두 번째 인류역사의 원동력으로 ‘성’(Sex)을 주목한다. 여기서 성은 직접적인 성행위와 남녀를 구분하는 성별 모두를 의미한다. 그는 성을 권력과 차별의 역사로 규정하고 먼저 그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살펴보았다. 생물학적으로 불리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종속적인 존재로 규정됐고, 차별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권력관계’에 대해 얘기한다. 계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폭력이 어떻게 작용하며,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왔는지 주목한다. 집단과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권력관계가 진보하는 역사의 원동력으로, 또는 광기와 폭력의 역사로 빛어지게 됐는지 분석한다. 이 책은 직립보행에서 비롯된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보게 한다. 저자는 핵전쟁과 환경오염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나열하며 인류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화두를 던진다. <문학사상·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다시 프로이트, 내 마음의 상처를 읽다 = 개인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상처를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해가는 다양한 임상사례를 통해, 일과 사랑,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의 다진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 윌리엄 박사는 정신분석학이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학문이 아니라, 우울·불안·공포증과 같이 주변에 흔히 발견되는 문제를 가진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더숲·1만4000원>

▲장사의 정석 = 창업 전문가 하마구치 다카노리는 “일본의 창업률을 10퍼센트 끌어올린다”는 미션을 실천하며 7000개 이상의 회사를 지원해 오면서 수많은 회사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왔다. 무엇을 하면 실패를 하고 무엇을 하면 성공하는지,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를 알게 됐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탄생한 것이 ‘장사의 정석’이다. 저자가 파악해낸 ‘경영의 12요소’를 이해하고,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저자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았다. <아이콘북스·1만5000원>

▲그래 그림 碑 = 소설가 유익서가 한산도에 칩거한 지 7년. 치밀한 연구와 함께 예술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정제해온 그가 여덟 편의 신작을 담은 소설집 ‘그래 그림 碑’을 통해 자신의 예술론을 집대성한다. 반구대 암각화와 파카소, 승전무와 야생 산조를 관통하는 작품집을 통해 작가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술은 어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대해 진중하게 답한다. <산지니·1만3800원>

▲여행의 이유 =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



을 일상처럼 살아가고픈 33인의 ‘여행의 이유’를 묶어놓은 책. 최갑수 여행작가가 서두에 밝힌 것처럼 여행은 ‘힘들고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그 사이사이에 버려져 버려지는 행복의 순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의적 벌어지는 절경 앞에서, 낯선 이들의 뒷방의 친절 앞에서, 여행 동반자의 행복한 얼굴 앞에서, 여행이 동반되는 다소의 피곤과 짜증과 힘든 과정이 한꺼번에 스트러 녹아내린다. <티핑포인트·1만5000원>

▲운이 스스로 돕게 하라 = 음양, 태극, 팔괘, 건괘, 곤괘 등 ‘역경’의 핵심원리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이를 통해 역경의 원리와 철학은 물론 인간과 자연의 이치, 자신의 운명을 독해하는 지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저자 정성장은 동양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음에도 난해함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된 ‘역경’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 어린이 책

▲여우 씨의 새 집 만들기 = 여우 씨가 주변에 사는 여러 동물들과 건축가 아저씨를 도와 새 집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 힘센 곰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비버가 나무를 깎아 바닥을 깔아 주며, 다람쥐는 햇빛을 쬐며 전기를 공급한다. 카다란 집을 짓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도 엿볼 수 있다. <스콜라·1만원>

▲슈퍼 히어로 = 동물들의 비범한 능력을 담은 그림책. 전갈, 사자, 여우 등 익숙한 동물들부터 티베트 들강나귀, 황금독화살개구리, 휴혈박쥐 등 신비한 동물에 이르기까지, 스콜라야 마리의 동물들이 들려주는 슈퍼 히어로의 무기를 ‘슈퍼 파워’로 이름 붙여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길벗어린이·1만8000원>

▲멧돼지가 살던 별 = 동화작가 김선정이 오랫동안 다져왔던 이야기를 소설로 옮



겨왔다. 새끼들을 모조리 잃고 마음마저도 잃어버린 채 마을과 산의 경계를 배회하는 멧돼지 산바, 새끼들을 죽인 자의 냄새를 좇아 인간의 마을로 내려온 산바는 어느날 자신처럼 마음을 잃은 유령이를 만난다. <문학동네·1만1500원>

▲핑계 생쥐 쫓아내기 = 장난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귀찮아하는 진영이 앞에 나타난 생쥐 두 마리. 핑계 아이디어를 특출하게 발휘하는 생쥐 덕에 진영이는 하기 싫은 일은 안하고, 친구들도 속여 넘긴다. 하지만 덩치가 커지면서 진영이를 조종하는 생쥐들 때문에 진영이는 생쥐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다. <아름다운사람들·1만1000원>

# 투시력·생명력 등 상황을 타개는 다섯가지 힘

##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김형태 지음



저자 소개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보면 비잔틴 성상화가 먼저 떠오르고, 양적완화를 보면 트레이더의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이 생각나는 사람.

경제학 전공자인 김형태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 교수가 펴낸 신작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은 예술을 통해 경제를 보고, 또한 경제를 통해 예술을 보는 책이다.

저자가 언급한 다섯 가지 힘은 투시력, 재정력, 원형력, 생명력, 중력-반중력이다. 예술가들은 이 다섯 가지 에너지를 통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예술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꾸었다고 이야기한다. 또 예술가들이 창출해낸 기발한 그림과 조각, 그리고 건축물은 예술의 공간과 경제의 공간을 새롭게 연결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49명의 예술가와 62점의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닭’과 ‘다름’을 꿰뚫어 보는 힘인 ‘투시력’은 윌리엄 터너와 마크 로스코의 작품, 그리고 아미존과 삼성의 이야기를 통해 풀어간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재정력’은 기발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면 해답 또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르네 마크리트, 엘 그레코의 작품은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준다. ‘생명력’은 살아 있음이다. 항상 움직이고 변하는 에너지 흐름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중나선계단’,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제임스 왓슨의 DNA 이중나선구조, GE와 인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생명력이 충만하다. 판을 뒤집고 게임 자체를 바꾸는 능력인 ‘재정력’ 역시 중요하다. 그는 예술의 대가들이 예술을 재정의해 판을 새로 짜듯이, 기업과 산업, 그리고 시장을 새롭게 재정할 수 있는 리더가 경제 판을 새로 짤 수 있다. 구스타브 쿠르베, 클로드 모네, 피터 몬드리안, 마르셀 뒤샹이 CEO라면 분명 그러했을 거라는 말이다. 회화, 조각, 건축 뿐 아니라 생명공학, 물리학, 경제학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펼쳐지는 내용이 만만찮다. <문학동네·1만9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임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